

6 문화

경희대 학생운동사 담은『회기동 연가』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9호 이후 학생운동은 극심한 탄압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많은 대학생이 유신체제에 분노해 힘겹게 민주화 운동의 죽을 티워냈다. 정해랑(국문학 1977) 작가의 『회기동 연가』는 바로 그 시기,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 간의 경희대학교 학생운동사를 아카이빙한 결과다. 스무 명의 청춘을 정작가의 기억으로 되짚어 책에 담았다. 첫 장면으로 1978년 9월 어느 날로 돌아간다.

오랜 침묵을 깨다

정 작가 기억에 따르면, 조직적인 학생운동의 조짐이 보였던 것은 1978년 9월 하순이었다. 긴급조치 9호 이후 얼어붙은 교정에서는 3년 가까이 어떤 시위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석태(영문학 1976)가 총대를 뗐고, 대학주보 기자 신명식(사학 1976)과 ‘백단’ 학회 신용남(사학 1977)이 각각 문리대, 정경대, 대운동장에 서서 교정의 오랜 침묵을 깨는 시위를 벌였다.

거사일은 2학년 학생들이 교련 행군을 하던 날이었다. 교련복을 입은 신용남이 M1 소총을 집어던지며 “유신헌법 철폐하라!” 하고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대열 사이사이에



『회기동 연가』를 집필한 정해랑 작가는 경희문화회 회장을 하며 문인의 꿈을 꾸었으나 유신체제에 분노하여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사진=이수연 기자)



있던 자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신용남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팔을 비틀어서 끌고 갔다. 정 작가는 “거사 직전 같은 국문과 동기가 ‘신용남이

오늘 시위를 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그가 소리를 치면 따라서 하라고 했지만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신용남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개 같아 끌려갔다”고 돌아봤다. 이 시위는 당시 현실에 비판적이던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학내 분위기를 바꾸게 한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신용남이 체포되던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정 작가 또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러가는 세상이 원망스러웠다”며 “사흘을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후 정 작가는 운동권이 됐다. ‘경희대 학생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비합법 조직도 이때 생겨났다.

전두환 정권 이후 최초 시위를 하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대학이 개강한 뒤 첫 번째 시위가 경희대에서 벌어졌다. 정 작가는 “수업 일수가 가장 적은 경희대가 가장 먼저 개강하게 됐던 상황에서 다른 학교가 우리가 벌일 시위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9월 9일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문리대 앞에서 정형서(의대 1978)가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자, 순식간에 어디선가 형사들이 달려들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함께 있던 김경(영어교육학 1978)이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그은 것이었다. 이건 함께 시위한 동료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곧이어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김경은 노천극장이 있는 스탠드 위에 서서 유인물을 읽기 시작했다. 의대생이

었던 정형서는 곧바로 달려가서 왼쪽 어깨 밑 동맥을 꽉 쥐고 그런 김경을 부축했다. 정 작가는 “경찰도 피를 흘리는 김경을 잡아가지 못하고 멈칫했다”며 “당시 김경을 끌어내리거나 했다면 주위를 둘러싼 학생들이 가만 안 있었을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김경은 앞뒤로 빠빠한 유인물을 끝내 다 읽을 수 있었다.

시위는 언론 통제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입으로 입으로 그 소식을 전했고, 개강을 맞이한 대학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한신대,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등에서도 연이어 시위가 벌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시작부터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됐고, 그 시발점을 연 것이 바로 우리학교 학생들이었다.

회기동에서 불린 민주주의의 노래

책에서 다룬 비합법 조직이 경희대 학생 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때부터 조직적인 학생운동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정 작가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가 묻혀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실제로 책에서 소개한 스무 명의 인물 중 세 명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회기동 연가』는 교문 앞에서, 강의실에서,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노래했던 ‘옛이야기’다. 돈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싸웠던 이들의 웃음과 두려움,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기억을 품은 기록이다.

경희의 다리, 경희 발전의 상징

남기원(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⑨
『경희의 다리, 경희발전의 상징』

서울캠퍸스에 다리가 몇 개 있을까? 캠퍼스 이곳저곳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면 머릿속에 두세 개는 떠올릴 테지만, 모두 합쳐 다섯 개라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 다섯 개의 다리는 개천을 건너는 다리와 계곡을 잇는 다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서울캠퍸스에서 개천을 건넌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캠퍼스 동편과 서

편을 나누며 흐르는 개천이 있었다. 회기천이라 불리던 이 개천은 고황산에서 내려와 본관 동편, 온실 뒤쪽, 청운관 앞을 지나쳐 학교 밖으로 흐르다 중랑천과 만났다. 캠퍼스 밖 개천은 1966년 복개 공사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캠퍼스 안에는 여전히 수로가 남아 있다.

이 개천 위에 놓인 다리는 세 개인데, 둘은 1961년에 건설되었다. 1955년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보면 온실 뒤편에 제1교, 교시탑~호텔관 광대 도로에 제2교를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 건설된 시점은 캠퍼스 동편 지역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1961년이었다.

이 두 다리의 이름은 학생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지었는데, 제1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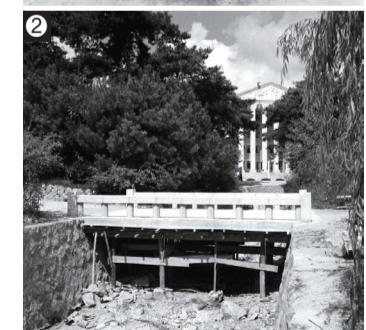
하늘로 오르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황궁교(皇宮橋)’, 제2교는 ‘아름다운 방울’이란 뜻의 ‘가령교(嘉鈴橋)’가 선정되었다.

한편, 세 번째 다리는 2000년 청운관 개관과 함께 건설된 청운교·대성교다. 청운관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곳에는 ‘청운교(青雲橋)’, 나오는 곳에는 ‘대성교(大成橋)’라고 새겨져 있다. 계곡을 잇는 다리 두 개는 선금교(仙琴橋)와 화성교(和成橋)다. 미술대학으로 향하는 길을 오르다 보면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 그 계곡을 잇는 다리가 바로 선금교이다. 1967년 완공된 사범대학관(현 미술대학관)으로 가는 길을 만들면서 함께 건설되었다. 이곳은 캠퍼스에서 숲이 가장 우거진 데다가

선동호로 이어지는 계곡 위에 놓여서인지 신선이 내려와 거문고를 켜는 곳이라는 뜻의 선금교라고 명명되었다.

서울캠퍼스 본관 뒤로 난 산길을 오르다 보면 다리가 나오는데, 바로 화성교(和成橋)다. 1977년 12월에 완공된 화성교는 1976년 평화의 전당 공사가 시작되면서 통행을 위해 만들었다. 화성교의 길이는 33m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을 기리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대학에 있는 다리들 가운데 가장 길고, 상대적으로 화려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화합하여 이룬다’는 다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성교는 조화와 협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희 정신을 상징한다.

서울캠퍼스의 다리는 캠퍼스가 확장되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점에서 경희의 다리는 경희 발전을 상징하는 건축 유산의 하나이다.



① 1960년대 초반 학교 앞 풍경이다. 검은 색 짙은 띠가 회기천의 모습이다. ② 지금 국제교육원 자리에 예전에는 자그마한 건물이 있었다. 임시도서관 등으로 사용되었던 이 건물은 온실 쪽에서 오르려면 계단이 무척 가팔라 마치 하늘로 오르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